

# 전북도, 상반기 국비 확보 44% ↑

### 중앙공모사업 80건 선정돼 2,369억원 확보 성과... 지난해 대비 729억원 증가

전북도가 올해 상반기 중앙공모사업 선정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는 2016년 상반기 중앙 공모사업에 총 80건이 선정돼 국비 2,36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국비확보 측면에서 지난해 동기(100건, 1,640억원) 대비 44%(729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도정 핵심사업과 보건복지·안전·환경분야에서 공모·선정 실적에 우수해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인프라 개선 등으로 안전전북 실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락농정 등 농업 분야에 6월 공모사업인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남원, 56억원) 등을 포함해 19건 324.3억원이 선정·확보돼 삼락농정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되며, 토탈관광 및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55.1억원) 등을 포함해 27건 142억원이 선정·확보돼 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 구축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도정 핵심사업의 하나인 탄소산업 및 성장동력 분야에는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실용화 촉진 사업(100억원) 등 6개 사업에 국비 344억원을 확보해 전북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ICT 융복합 농업용 드론 시연회

ICT 융복합 농업용 드론 간담회 및 시연회가 21일 김제 진봉농협에서 열린 가운데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농업용 드론 시연을 보고 있다.

다. 보건복지·안전·환경분야에는 공공실버주택 건설 사업(100억원)과 6월 공모·선정된 도시첨수대응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사업(289억원) 등 15건 1,214.1억원이 선정·확보됐고 일자리창출 등 고용인정 분야에는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17.2억원) 등 8건 43.3억원이 선정·확보됐다.

이외 도는 새마을사업(191.7억원)과 지역행복생활권 시군 연계협력사업(81.6억원) 등 기타 5개 사업에 301.2억원을 선정·확보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 도가 우수한 중앙공모사업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는 초기 준비단계부터 응모단계까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관리가 이뤄졌고, 산·학·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수시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 증가 추세로 인한 지방비 부담 가중에 따라

공모사업 응모 필요성에 대한 도의 종합적인 검토 및 사전심사 시스템 운영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도는 오는 7월 7건 1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 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철저히 준비해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LX공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관·기관장 'A' '국토정보 제공'에 높은 점수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에서 기관·기관장 'A등급(우수)'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LX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10년 연속 무차임 경영 유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 지적측량업무 수행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토정보 제공'에 높은 점수를 받아 역대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국가기관, 민간 등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LX국토정보 기본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가공한 디지털정보도면으로 공개

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17만여 건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직 무표준(NCS)과 장기현장실습(IPP)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해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신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 주거정책 수립 등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성과를 나타냈다. /정영수 기자

## 전북도 금융산업 발전위원회 출범

22일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위원회가 20명의 국내 금융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위원회는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의 호재를 살려 전북의 금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자 금융계, 학계, 언론 등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작년 10월 제정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금융전문 인력양성 방향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전반적인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들의 심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현재 전북의 지역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전북이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라는 호재를 살려 금융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전라사업인 농생명, 탄소산업, 관광 등 핵심산업

을 견인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외 그는 “512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기폭제로 금융산업을 육성해 전북 성장의 한 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산업 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 채무비율 60% 이상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행사·축제 효율화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 확대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예산대비 채무비율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지표가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기로 했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공무원이 파견

될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파견될 경우 보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파견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자체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또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 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과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일정금액(시·도 5000만 원, 시·군·구 2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사업 평가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 행사성 사업의 재정투자사업 심사도 현행 시·도 5억원 시·군·구 3억원 이상에서 시·도 3억원 시·

군·구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부정사용 금액의 30%·최대 1억원)을 신설했다.

지방보조사업 관련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했다.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도 신설했다.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외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토록 했다.

김성열 행정부 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행사·축제 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도, 재정운용사업 민간 전문평가단 운용

21일 전북도는 투자사업, 행사성사업에 대해 재정운용 성과와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는 민간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 및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여겠다는 취지이다.

평가대상은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총사업비 3000만원이상 투자사업, 2000만원이상 행사성사업 65개(462억원) 등이다.

또한 '미흡' 이하 사업 구조조정을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평가단 평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경제·환경·복지 분야, 농수산·문화예술분야, 건설·교통·소방분야 등 3개 분야 6명으로 구성해 추진한다.

도는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20%이상 삭감하거나, 통합·축소 등 구조조정과 함께 성과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재정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스피치특강 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사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사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파견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사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턴트
- 저서: '355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만만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 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